

플라즈마로 지역산업 혁신 이끈다

군산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에서 '복합연구동' 준공식... 도전적 융합·원천 연구 강화

전북도는 9일 군산 새만금에 위치한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공동연구실과 통합지원센터 등을 갖춘 복합연구동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준공식은 전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광연 이사장, 강임준 군산시장 및 군산시 의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에 준공된 복합연구동은 2015년부터 약 4년간 총 217억원을 투입, 부지면적 2만5,770㎡, 연면적 1만6,74㎡의 지상 3층 규모로 특수 실험실 3개를 포함한 실험실 28개, 연구실 22개를 갖추고 있다.

기존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의 연구공간을 대폭 확장한 복합 연구동은 특수 실험실, 지역 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공동연구실,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분석·연구장비 공동 활용을 위한 공동 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플라즈마 응용기술은 반도체, 에너지, 환경, 의료, 신소재 등 각 산업의 핵심기반기술로 전북도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신산업 창출과 지역산업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2012년 11월 개소해 △신기술 창출 및 플라즈마 발생원 개발, △플라즈마 특성평가를 통한 물질 간



9일 군산 새만금에 위치한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공동연구실과 통합지원센터 등을 갖춘 복합연구동 준공식이 열렸다.

상호작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플라즈마 기반 환경 기술 개발, △플라즈마-농식품 융합기술 등 플라즈마 파생기술 상용화와 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공동연구실과 전북지역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플라즈마 응용기술

을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의 혁신 잠재력을 끌어내어 도내 산업의 체질개선 및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합연구동 완공을 기반으로 그동안 연구공간의 한계로 실험이 어려웠던 도전적 플라즈마 융합·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국가적인 플라즈마 R&D 거점 연구센터로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소장은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의 선도적인 R&D 능력을 뒷받침하게 될 복합연구동 완공은 국민 체감형 플라즈마 원천기술 연구를 확대하고, 연구소가 국내·외 플라즈마기술의 거점으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다람쥐원숭이들에게 새 보금자리 생기네?

전주, 동물원 원숭이사 조성
환경은 자연서식지와 유사

전주동물원 다람쥐원숭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됐다.

전주시는 동물들이 생태서식지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태동물원 조성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국비 등 약 20억 여원을 투입해 원숭이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완료된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 기본계획용역에 따라 사자·호랑이사, 큰물새장, 늑대사, 곰사 등의 시설환경을 개선해 왔다. 현재 약 30%의 공정률을 기록 중인

원숭이사는 4종의 원숭이를 위한 새보금자리로 부지면적 3,430㎡에 건축물 3개동, 내실 7개, 방사장 4개, 다람쥐원숭이 특화시설로 조성된다.

특히 원숭이사 부지 중앙에 마련되는 다람쥐원숭이를 위한 전시특화공간은 높이 8m에 놀이시설과 수목, 특수철망 등으로 구성돼 동물들이 기존 철장으로 된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자연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갖춘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시베리아 호랑이사 신축공사도 추진

하고 있다.

현재 약 30%의 공정률을 기록중인 시베리아 호랑이사는 약 20억여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4,722㎡에 건축물 1개동, 내실 5개, 교계방사장 1개, 간이 및 야외 방사장 각 2개로 교차 방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여기에, 시는 올해 안에 재규어·스라소니·표범 등 맹수들의 새보금자리인 '맹수의 숲'과 파나코·라마·마라 등이 생활할 '초식동물의 숲'도 조성할 계획이다.

동물원 관계자는 "다람쥐원숭이를

위한 전시특화공간을 만드는 이유는 개체수가 많고 활동량도 많아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많아 생태동물원의 가치를 미래 주역인 아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매일 INDEX
16면 -문 대통령 취임 2년 전북도 성과
토·일요일 신문 쉽다.

社告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13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일시: 2019년 5월 19일(일) 본선 오후 2시 30분

(예선 오전 10시)

장소: 전주 풍남문 광장(풍남문 옆)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장애인들의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장애인 가요제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지소, 전주시 장애인 복지협회
- ▶ 후원 및 협찬: 전북도,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전북지회, 호남향토음악발전협의회, 노사모, 전북장애인신문사, JJC 지방자치 TV 전북방송(녹화방송) 등
- ▶ 참가자격: 만 16세 이상 장애인(단, 전국대회 대상 1등 수상자 제외)
- ▶ 접수기간: 2019년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 ▶ 접수처: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번지(5층), 063-231-6669
전주시 완산구 관성3길 21-15(2층), 063-286-6678
FAX: 063-287-6676, E-mail: yangokkim@hanmail.net



전주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추진

효자동 우정청사거리·서신동 유연로 등 3곳

전주시 곳곳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올해 총 2억 9000만원을 투입해 △효자동 전북지방우정청 사거리 △서신동 유연로(KEB하나은행~부킹나이트 구간) △진북동 기린대로와 안덕원로가 만나는 사거리(정동영의원사무실 앞) 등 3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구간 및 지점에는 차선이 조정되거나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시

설, 신호과속위반단속카메라 등이 설치돼 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일례로, 야간시간대 무단횡단이 빈번한 서신동 구간의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효자동과 서신동 2개소를 착공해 오는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고 진북동 지점의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점검반의 설계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전라북도
아름다운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THE 13th KOREAN YOUTH PARA GAMES
2019.5.14.~17.(4일간)
전라북도 일원(익산시 등 6개 시군)



JEONBUK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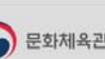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THE 48th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2019.5.25.~28.(4일간)
전라북도 일원(익산시 등 14개 시군)

주최  대한체육회

주관  전라북도

후원  전라북도교육청

후원  전라북도체육회

후원  JBSA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